

17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게으름은 즐겁지만 괴로운 상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예술 철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이자 비평가인 단토는 예술의 종말을 선언하였다. 그는 자신이 예술의 종말을 주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1964년 맨해튼의 스테이블 화랑에서 열린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의 전시회에서 찾고 있다. 그는 워홀의 작품 <브릴로 상자>가 일상의 사물, 즉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릴로 상자와 시각적 측면에서 차이가 없음에 주목하여 예술의 본질을 찾는 데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워홀의 <브릴로 상자>를 통해, 그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두 대상이 있을 때, 하나는 일상의 사물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 작품인 이유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어떤 대상이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에 관함(aboutness)'과 '구현(embodiment)'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여기서 '무엇에 관함'은 내용 또는 의미, 즉 예술가가 의도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가리키며, '구현'은 그것을 적절한 매체나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예술 작품은 해석되어야 할 주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후 단토는 예술의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워홀의 <브릴로 상자>가 1964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등장했다면 예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술계(artworld)'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가 말하는 '예술계'란 어떤 대상을 예술 작품으로 식별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당대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지식과 이론 그리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체계를 가리킨다. 1964년의 <브릴로 상자>가 예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일상의 사물과 유사하게 보이는 대상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 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단토는 예술의 역사를 일종의 '내러티브(이야기)'의 역사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사가 그러하듯이 예술사도 무수한 예술적 사건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건들을 선택하고 그 연관성을 질서화하는 내러티브를 가진다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상주의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이른바 '바자리의 내러티브'는 대표적인 예이다. 모방론을 중심 이론으로 삼았던 바자리는 생생한 시각적 경험을 가져다주는 정확한 재현이 예술의 목적이자 추동 원리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바자리의 내러티브는 사진과 영화의 등장, 비서구 사회의 문화적 도전 등의 충격으로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대의 예술가들은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에 따라 예술은 모방에서 벗어나 철학적 내러티브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사를 예술이 자신의 본질을 찾아 진보해 온 발전의 역사로 보는 단토는, 워홀의 <브릴로 상자>에서 예술의 종말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브릴로 상자>로 촉발된 단토의 예술 종말론은 더 이상 예술이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예술이 철학적 단계에 이르면 그 이전의 내러티브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예술 종말론은 비극적 선언이 아닌 낙관적 전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토는 예술 종말론을 통해 예술이 추구해야 할 특정한 방향이 없는 시기, 예술이 성취해야 하는 과업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시기, 즉 예술 해방기의 도래를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1.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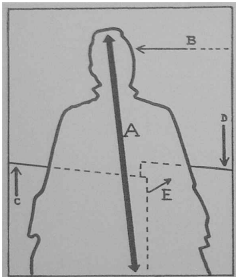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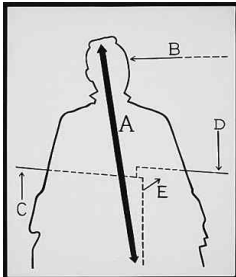
- ① 단토가 파악한 내러티브로서의 예술사
- ② 단토가 예술 종말론을 주장하게 된 계기
- ③ 단토의 예술 종말론이 지닌 긍정적 함의
- ④ 단토가 제안한 예술계의 지위 회복 방법
- ⑤ 단토가 제시한 예술 작품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

2.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단토'의 견해에 부합하기 어려운 진술은?

- ① 오늘날의 예술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을 넘어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② 예술 작품의 본질을 정의하려던 과거의 시도가 결국 실패한 것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실제 사물과 달리, 예술 작품은 그것을 예술로 존재하게 하는 지식과 이론 등에 의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 ④ 예술의 종말 이후에도 시각적 재현을 위주로 하는 그림은 그려졌지만, 그것이 재현의 내러티브를 발전시키지는 않는다.
- ⑤ 특정한 사고는 특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러서야 생각될 수 있으므로 한 시기에 예술 작품일 수 있는 것이 다른 시기에는 예술 작품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A)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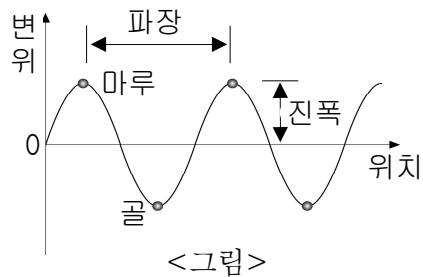
(A)는 인상주의 화가인 폴 세잔의 <세잔 부인의 초상>이다. (B)는 미술 평론가인 로랭이 자신의 책에서 (A)의 양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다이어그램이다. (C)는 로랭의 책이 출간된 이후에 리히텐슈타인이 그린 <세잔 부인의 초상>이다. 단토는 (B)는 (A)의 양감을 잘 보여 주고 있지만 미술 작품은 아니고, (C)는 세잔이 바라보는 세계를 위트 있게 표현한 미술 작품이라고 말했다.

- ① (A)는 대상의 외관을 재현한 것으로, '바자리의 내러티브'에 의해 미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② (B)는 예술에 대한 철학적 의문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A)와 다르다.
- ③ (C)를 미술 작품이라 한 것은 예술이 철학적 단계에 이르러 그 이전의 내러티브가 종결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A)와 (C)가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대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믿음 체계에 대한 지식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 ⑤ (B)와 (C)는 시각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B)는 해석되어야 할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국어 영역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파동은 공간이나 물질의 한 부분에서 생긴 ㉠ 주기적 진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위로 멀리 퍼져 나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수면파, 공기 등을 통해 전달되는 음파 등은 매질을 통하여 진동이 전달되는 역학적 파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역학적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하는 매질의 ㉡ 입자가 옆의 입자를 진동시키는 방법으로 매질을 따라 전달된다.



파동은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평형점 0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점을 마루, 가장 낮은 지점을 골이라고 한다. 그리고 평형점 0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높이, 즉 진동하는 입자가 평형점에서 최대로 벗어난 거리를 진폭, 마루와 마루 또는 골에서 골까지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며, 파동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주파수라고 한다.

파동의 진행 속도는 파장과 주파수의 곱으로 나타내며, 파동의 ㉢ 속도가 일정하면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다는 특성이 있다. 역학적 파동은 진행하면서 매질에 흡수되어 에너지를 잃기도 하는데, 음파의 경우 주파수가 높을수록 매질에 더 잘 흡수되어 멀리 진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매질을 따라 진행되는 역학적 파동이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 파동의 일부는 반사되어 돌아오고, 일부는 다른 매질로 투과하는 현상을 보인다.

먼저, 반사는 ㉣ 한 끝이 벽에 고정된 줄을 따라 파동이 전달되는 상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 파동이 매질인 줄을 따라 진행하다가 고정단*에 ㉤ 도달하면 진행해 온 반대 방향으로 줄을 따라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처럼 매질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계에서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되돌려지는 것을 반사라고 한다.

다음으로 ㉥ 다른 조건은 모두 같을 때, 밀도가 낮은 줄이 밀도가 높은 줄에 연결되어 있고, 이 줄을 따라 파동이 진행하는 상황을 통해 투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파동이 밀도가 낮은 줄을 지나 밀도가 높은 줄과 연결된 경계에 도달하면 파동의 일부가 반사된다. 하지만 일부는 밀도가 높은 줄로 계속 진행하는데, 이를 투과라고 한다. 이때 파동이 투과되거나 반사되는 정도는 매질들의 물리적 특성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줄에서 진행되는 파동의 경우 매질 간의 밀도 차가 클수록, 음파의 경우 매질의 밀도와 음속을 곱한 값인 음파 저항이 클수록 반사 정도가 큰 경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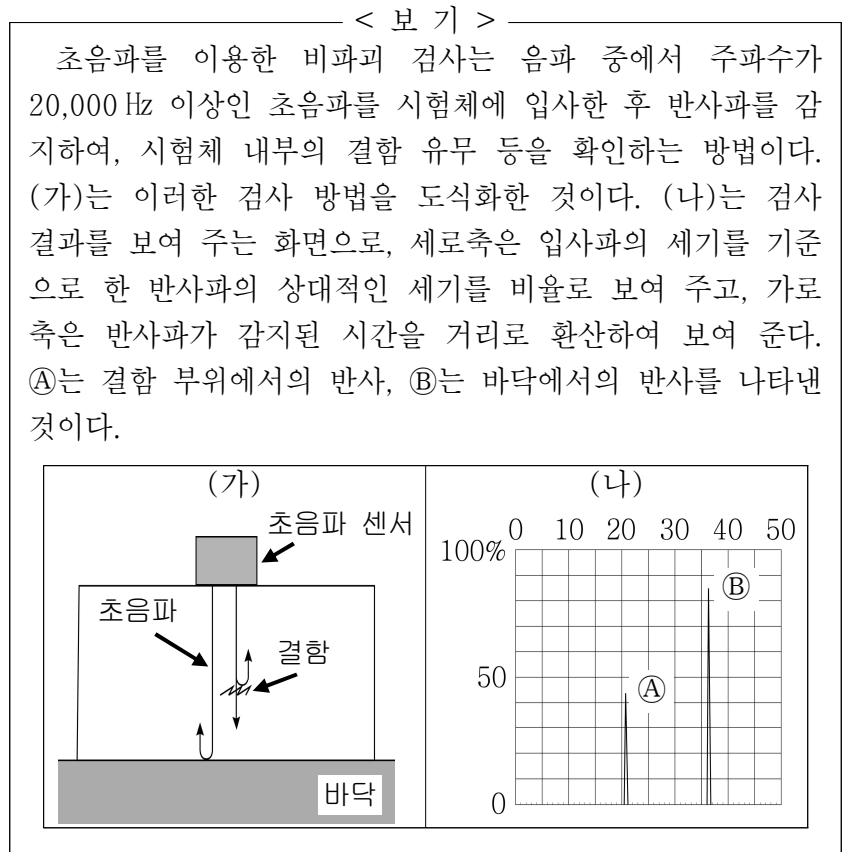
한편, 입사한 하나의 파동이 매질의 물리적 저항이 다른 경계에서 반사파와 투과파로 나누어질 때, 별도의 에너지 ㉦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두 파동이 갖는 에너지의 합은 원래 입사한 파동의 에너지와 같게 된다. 다만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입사한 파동의 에너지 중에서 일부분만 포함하는 반사파의 진폭은 줄어들게 된다.

* 고정단: 파동이 반사될 때, 파동의 위상이 180° 변하는 매질의 경계를 이르는 말.

4.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파동의 진행 속도가 동일하다면 낮은 주파수의 파동일수록 파장이 짧다.
- ② 파동의 진폭은 진동하는 입자가 평형점에서 최대로 벗어난 거리이다.
- ③ 파동은 진동이 주위로 퍼져 나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 ④ 역학적 파동의 에너지는 매질을 통하여 전달된다.
- ⑤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

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결함 부위에서 반사된 초음파는 입사파보다 진폭이 작겠군.
- ② (가)에서 시험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이용해야겠군.
- ③ (나)에서 ㉠과 ㉡를 비교하면, 결함 부위의 음파 저항과 그 주변의 음파 저항의 차이보다 시험체의 음파 저항과 바닥의 음파 저항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결함 부위가 초음파 센서와 더 가까웠다면, ㉠은 현재보다 왼쪽에 나타났겠군.
- ⑤ (나)에서 ㉡가 100%가 되지 않은 것은, 초음파의 에너지 일부가 시험체에 흡수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군.

국어 영역

6.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역학적 파동으로 인한 매질의 특성 변화를 보여 준다.
- ② ㉠과 ㉡은 모두 역학적 파동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의 증가를 보여 준다.
- ③ ㉠과 ㉡은 모두 매질의 경계에서 생겨나는 역학적 파동의 변화를 보여 준다.
- ④ ㉠은 파동의 진폭이 커지는 요인을, ㉡은 파동의 진폭이 작아지는 요인을 보여 준다.
- ⑤ ㉠은 파동이 매질에 입사되는 양상을, ㉡은 파동이 매질에서 흡수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7.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진행하거나 나타나는.
- ② ㉡: 물질을 구성하는 미세한 크기의 물체.
- ③ ㉢: 물체가 나아가거나 일이 진행되는 빠르기.
- ④ ㉣: 목적인 곳이나 수준에 다다름.
- ⑤ ㉤: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

[8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으로
 누룩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우리에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떡따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밥때 늦어도 투덜덜 줄 통 모르고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 흰히 가르마 났지요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머슴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 오듯 읽었지요
 어린아이 세상에 눈떴지요 ㉠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거겨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지요

대길이 아저씨한테는
 주인도 동네 어른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지요 [㉡]
 살구꽃 핀 마을 뒷산 올라가서
 홀적삼 처녀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하고
 지겟작대기 뉘어놓고 먼 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
 나도 따라 바라보았지요
 우르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리는 듯하였지요
 찬 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겨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그가 말했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단다 [㉣]
 남하고 사는 세상이란다

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새우는 긴 불빛이었지요
 - 고은, 「머슴 대길이」 -

(나)

사랑방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것은 텃도지가 밀려 잔뜩 주눅이 든 허리 굽은 새우젓 장수다.
 건넌방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금광 덕대를 하는 삼촌에다 금방앗간을 하는 금이빨이 자랑인 두집담 주인과 어울려
 머리를 맞대고 하루 종일 무슨 주판질이다.
 할머니는 헛간에서 국수틀을 돌리시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재봉틀을 돌리신다.
 찌걱찌걱찌걱..... 할머니는 일이 힘들어 불이 부우셨고,
 돌돌돌돌..... 어머니는 기계 바느질이 즐거워 입을 병긋대신다.
 나는 사랑방 건넌방 헛간 안방을 오가며 딱지를 치고 구슬 장난을 한다.

중원군 노은면 연하리 470, 충주시 역전동 477의 49,
 혹은 안양시 비산동 489의 43,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27
 의 29.

국어 영역

이렇게 옮겨 살아도 이 틀은 깨어지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사랑방에 아버지는 건넌방에, 할머니는 헛간에 어머니는 안방에 계신다.
내가 어려서부터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외지로 떠돈 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으리.
어쩌랴, 바다를 건너 딴 나라도 가고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
저승에 가도 이 틀 속에서 살 것인가, 나는 그것이 싫지만.

어느새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는 나의 이 집이 좋아졌다.
사랑방과 건넌방과 헛간과 안방을 오가면서
철없는 아이가 되어 딱지를 치고 구슬 장난을 하면서
나는 더없이 행복하다, 이 그림 속에서.
- 신경림, 「즐거운 나의 집」 -

8.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다.
- ② 화자가 소망하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대화체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
- ④ 일상적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9.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길이가 아저씨'에게 한글을 배워 세상에 대해 알아 갈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② ㉡: '대길이가 아저씨'가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는 태도가 공동체 내부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 ③ ㉢: '대길이가 아저씨'가 현실 세계에 대한 대안의 공간으로 순수한 자연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 ④ ㉣: 이기적인 삶을 멀리하고자 했던 '대길이가 아저씨'의 가치관이 화자에게도 전달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대길이가 아저씨'가 화자에게 특별한 존재로 남아 변함없이 화자의 삶을 이끌어주었음을 보여 준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인간은 자신이 나고 자란 '집'에 대해 본원적인 애착을 갖게 된다. 이곳은 자신을 감싸주던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근원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성장하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려 결국은 자신이 나고 자란 '집'을 떠나게 된다. 그렇지만 인간은 언젠가 그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본원적인 애착이 그려낸 기억의 '그림'이 나이가 들수록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 ① '사랑방 건넌방 헛간 안방을 오가며' 놀이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가족들이 감싸주는 공간에서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낸 화자를 떠오르게 하는군.
- ② '이 그림 속에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한 것은 가족들과 함께 한 유년의 따뜻했던 기억의 '그림'이 화자에게 본원적인 애착을 유발하기 때문이겠군.

- ③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어려서부터 외지로 떠돈 것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화자가 이끌렸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라고 한 것은 화자가 '나의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겠군.
- ⑤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는 화자가 '이 틀 속에서' 벗어나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겠군.

[11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사 씨는 유한림과 혼인하여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나 첩 교 씨의 음모로 가문에서 쫓겨난다. 사 씨는 온갖 고난을 겪다 강에 뛰어들려 하지만 여종(차환)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사 씨는 통곡하다 잠들고 꿈속에서 낭랑을 만난다.

낭랑은 시비를 시켜 사 씨에게 차를 올리게 했다. 차를 마시고 사 씨에게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온 지 오래되었으니 시비들이 반드시 의심할 거예요. 빨리 돌아가세요.”

㉠ “낭랑께서 부르시어 첩이 짧은 목숨을 겨우 이었습니다만, 실로 의탁할 곳이 없으니 돌아가 봐야 응당 물에 뛰어들 뿐입니다. 낭랑께서 첩을 비루하게 여기시지 않아 시비의 말석 옆자리에라도 머물게 허락하시면 이곳에서 낭랑을 모시며 지내고 싶습니다.”

낭랑이 웃으며 말했다.

“부인은 다른 날 마땅히 이곳으로 와서 조대가*, 맹광*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예요. 지금은 기한이 차지 않았으니 머물고자 해도 어찌 가능하겠어요? 남해도인이 그대와 깊은 인연이 있으니 잠시 의탁하도록 하세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지요.”

㉡ “첩이 듣기에 남해는 세상의 한구석으로 길이 멀고 험하다 했습니다. 첩에게는 수레도 없고 양식도 없으니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곧이어 반드시 인도할 사람이 생길 터이니 심려치 마세요.” 이어서 동쪽 벽 자리의,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두 눈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바로 그대가 말한 위나라의 장강*이랍니다.”

또 용모가 밝은 꽃과 같고 얼굴이 수려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한나라의 반첩여*예요.”

또 서쪽 벽 자리의, 거동이 한아하면서 얼굴이 반첩여 같은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후한의 조대가요요.”

또 얼굴이 살지고 피부가 조금 검은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양처사의 아내인 맹 씨예요.”

사 씨가 다시 일어나 인사를 드리고 말했다.

㉢ “여러 부인께서는 첩이 평생 모시고 심부름이라도 하길 바랐던 분들이옵니다. 오늘 직접 얼굴을 뵈 수 있을 거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네 부인은 각각 눈빛으로 마음을 보냈다.

사 씨가 절하고 물러나오는데, 낭랑이 말했다.

“힘쓰고 힘써, 선을 행하세요. 오십 년 뒤에 마땅히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국어 영역

다시 여동에게 명해 사 씨를 모시도록 했다. 사 씨가 대전에서 내려오자마자 대전에 열두 개의 주렴이 드리워졌고,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사 씨는 마음이 놀라 몸이 움찔했다. 유모와 차환은 사 씨가 소생한 것을 알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날은 이미 저물었다.

사 씨는 정신이 어질어질하여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안정되었다. 차의 향은 여전히 입안에 남아 있었고 낭랑의 말도 귀에 생생했다. 유모에게 말했다.

“내가 조금 전에 어디를 다녀왔는가?”

“부인께서 한동안 숨이 막힌 듯하더니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혼백이 어디라도 다녀오셨나요?”

사 씨가 이어 **꿈속**에서 낭랑을 만나 서로 문답한 말을 전하고, 후원의 대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분명히 푸른 옷의 여동을 따라서 저 길로 갔네. 자네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따라오게.”

마침내 작은 길을 따라 대숲 밖으로 가니 과연 묘당 한 채가 있었다. 현판에 ‘황릉묘’라 써 있으니, 정말로 아황과 여영의 묘당이였다. 묘당의 모습은 꿈속에서 본 것과 닮았으나 단청은 떨어지고 전각은 황량했다. 묘당의 문으로 들어가 대전 위까지 올라갔다. 흙으로 빚은 두 비(妃)의 소상(塑像)이 엄연히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 씨가 향을 사르고 공손히 아꼈다.

“천첩이 낭랑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뒷날 하늘에서 뵈더라도 마땅히 큰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나 서쪽 행랑에 앉았다. 굶주림이 자못 심하여 차환에게 묘당을 지키는 집에서 음식을 얻어오게 했다. 세 사람이 음식을 나눠 요기하고 서로 말했다.

“묘당 근처에 의지할 만한 곳이 없으니 신령이 우리를 회롱했도다.”

그 무렵 해가 서산에 지고 달빛이 어둑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묘당의 문으로 들어왔다. 한동안 사 씨 일행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사람이 아닐까?”

사 씨가 나아가 바라보니 한 명은 여승이요, 다른 한 명은 여동이였다.

두 사람이 말했다.

“낭자께서는 어려움을 만나 강물에 뛰어들려 하지 않았나요?”

세 사람이 놀라며 말했다.

“스님이 어찌 그것을 아시나요?”

여승이 놀라, 예를 올리며 말했다.

“저희는 동정호의 군산에 있습니다. 방금 **비몽사몽간**에 백의 관음께서 말하기를 ‘어진 여인이 어려움을 만나 물에 뛰어들려 하니 빨리 황릉묘에 가서 구하라’ 하여 배를 저어 왔더니 과연 낭자를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정말 신이하군요.”

사 씨가 말했다.

㉔ “우리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구해주시니, 매우 고마워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을 따라가면 혹 암자에 폐를 끼칠까 걱정입니다.”

㉕ “출가한 사람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보살의 명까지 받았습시다. 낭자께서는 염려치 마십시오.”

모두가 서로를 부축해 언덕을 내려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갔다. 갑자기 한 줄기 순풍이 황릉묘로부터 불어와 순식간에

군산에 도착했다. 군산은 그 이름처럼 동정호 칠백 리 가운데 홀로 우뚝했다. 사방이 모두 물이고 기이한 바위들이 모였으며, 대숲은 뻗뻗하고 솔숲은 무성하여 예로부터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는 곳이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조대가, 맹광(맹 씨), 장강, 반첩여: 부녀자의 덕을 실천한 여성들로 알려짐.

11.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사 씨’는 깨어난 뒤에도 꿈에서 경험한 일을 생생히 느꼈다.
- ② ‘사 씨’ 일행이 찾아간 ‘황릉묘’는 초라하고 황량한 곳이었다.
- ③ ‘사 씨’ 일행은 남에게 음식을 얻어먹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
- ④ ‘사 씨’ 일행은 ‘황릉묘’를 떠나 정처 없이 방랑하던 중에 ‘여승’ 일행을 만났다.
- ⑤ ‘사 씨’가 도착한 ‘군산’은 예로부터 세속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12.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조하여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아내고 있다.
- ② ㉒: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들어 상대방의 제안이 실현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㉔: 상대방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폐를 끼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㉕: 자신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여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1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천상계([A])와 지상계([B])라는 공간,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꿈속’, ‘비몽사몽간’과 같은 반(半)현실적 공간([C])이라는 세 개의 공간적 층위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공간 설정은 이야기 전개와 인물 형상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하고 있다.

- ① [C]에서는 [A]의 뜻에 따라 [B]에서의 사건이 전개되는 방향을 ‘사 씨’에게 예고하고 있다.
- ② [C]의 ‘꿈속’은 ‘사 씨’가 [B]에서 지켜나가야 할 삶의 지표와 그녀의 예정된 미래의 모습을 알리고 있다.
- ③ [C]의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 씨’가 [B]에서 느끼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④ [B]의 존재인 ‘사 씨’가 [C]의 ‘꿈속’에서 만나는 ‘장강’, ‘반첩여’ 등의 인물은 그녀의 현숙한 인물됨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⑤ [B]에서 ‘여승’이 ‘사 씨’를 구하기 위해 ‘군산’에서 온 것은 [C]의 ‘비몽사몽간’을 통해 [A]의 뜻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어 영역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중(山中)에 책력(冊曆) 없어 사시(四時)를 모르더니
 눈 아래 헤친 경(景)이 철철이 절로 나니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仙間)이라.

㉠ 매창(梅窓) 아침별에 향기(香氣)에 잠을 깨니
 산옹(山翁)의 할 일이 곧 없지도 아니하다.

울 밑 양지(陽地) 편에 외씨를 뿌려 두고
 매거니 돋우거니 빗김에 가꿔 내니
 청문고사(靑門故事)를 이제도 있다 하겠다.

망혜(芒鞋)를 단단히 신고 죽장(竹杖)을 홀어 짚으니
 도화(桃花) 핀 시내 길이 방초주(芳草洲)에 이었어라.

잘 닦은 거울 속 절로 그린 석병풍(石屏風)
 그림자를 벗을 삼아 서하(西河)로 함께 가니
 도원(桃園)은 어드매오 무릉(武陵)이 여기로다.

남풍(南風)이 건듯 불어 녹음(綠陰)을 헤쳐 내니
 계절 아는 피꼬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희황(羲皇) 베개 위에 풋잠을 얼핏 깨니
 공중(空中) 젖은 난간(欄干) 물 위에 떠 있구나.

마의(麻衣)를 걷어 올리고 갈건(葛巾)을 기울여 쓰고
 구부렀다 기대었다 보는 것이 고기로다.

하룻밤 빗기운에 홍백련(紅白蓮)이 섞여 피니
 바람기 없어서 만산(萬山)이 향기로다.

염계(濂溪)를 마주보아 태극(太極)*을 묻는 듯
 태을진인(太乙真人)*이 옥자(玉字)를 헤쳐 놓은 듯
 노자암(鷓鴣巖) 바라보며 자미탄(紫薇灘) 곁에 두고
 장송(長松)을 차일(遮日) 삼아 석경(石徑)에 앉으니
 인간(人間) 유월(六月)이 여기는 삼추(三秋)로다.

청강(淸江)에 떠 있는 오리 백사(白沙)에 옮겨 앉아
 백구(白鷗)를 벗을 삼고 잠 깰 줄 모르나니
 무심(無心)코 한가(閑暇)함이 주인(主人)과 어떠한가.

- 정철, 「성산별곡」 -

* 태극(太極): 우주만물이 생긴 근원이라고 보는 본체(本體).
 * 태을진인(太乙真人): 하늘에 있는 진선(眞仙).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 상징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② 애상적 어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계절의 변화 양상과 관련지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구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5. <보기>와 <자료>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고전시가에서는 고사(古事)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소재’를 활용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고사와 시적 상황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연상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작품에서는 다음의 <자료>와 같이 고사에 나오는 소재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자 료 >

- 외씨: 중국 진나라 때 ‘소평’이 나라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청문 부근에서 농사를 지으며 심었다는 오이씨.
- 도화(桃花): 중국 진나라 때 한 어부가 별천지인 무릉도원에 가게 되었다는 고사에 나오는 복숭아꽃. ‘무릉도원’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하였다고 함.
- 희황(羲皇) 베개: ‘희황’은 태평성대를 이룬 중국 전설에 나오는 ‘복희씨’의 다른 이름으로, ‘희황 베개’는 ‘태평한 세상’을 상징함.
- 홍백련(紅白蓮): ‘염계(濂溪)’가 지은 ‘애련설(愛蓮說)’에 나오는 ‘연꽃’. 이 ‘연꽃’은 ‘군자’의 풍모를 빗대었음.
- 백구(白鷗): 인간의 ‘무심(無心)’을 알아보는 갈매기. 어부가 갈매기를 잡으려는 마음을 갖고 바다로 나서자 평소에는 그를 따르던 갈매기들이 멀리 도망가 버렸다는 고사에서 나옴.

- ① [A]에서 ‘외씨’를 활용한 것은, ‘외씨’를 뿌리며 사는 ‘산옹’의 소박한 삶에서 ‘소평’의 삶이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B]에서 ‘도화’를 활용한 것은, ‘시내 길’에서 본 ‘도화’의 모습에서 ‘복숭아꽃’이 만발한 ‘무릉도원’이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 ③ [C]에서 ‘희황 베개’를 활용한 것은, ‘풋잠’을 자다 깨며 느낀 평안함에서 ‘희황’의 태평한 시대가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 ④ [D]에서 ‘홍백련’을 활용한 것은, ‘만산’의 연꽃 ‘향기’를 맡으면서 ‘염계’가 말한 ‘군자’의 덕이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 ⑤ [E]에서 ‘백구’를 활용한 것은, ‘무심코 한가’한 ‘주인’의 모습과 갈매기를 잡으려던 ‘어부’의 모습이 같은 것으로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16. 윗글의 ㉠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기러기 우는 밤에 내 홀로 잠이 없어
 잔등(殘燈) 돋워 켜고 전전불매(輾轉不寐) 하는 차에
 창(窓) 밖에 굶은 빗소리에 더욱 망연(茫然)하여라

- 강강월의 시조 -

- ① ㉠의 ‘매창’과 <보기>의 ‘창’은 모두 ‘산옹’과 ‘나’가 각각 머물고 있는 곳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의 ‘아침별’은 ‘산옹’이 맞고 있는 아침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보기>의 ‘기러기 우는 밤’은 ‘나’가 지새고 있는 밤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의 ‘향기’는 ‘산옹’의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보기>의 ‘굶은 빗소리’는 ‘나’가 잠들지 못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 ④ ㉠의 ‘할 일’은 ‘산옹’이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과업이고, <보기>의 ‘잔등 돋워’는 ‘나’가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 ⑤ ㉠의 ‘곧 없지도 아니하다’에서는 ‘산옹’의 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보기>의 ‘더욱 망연하여라’에서는 ‘나’의 처지에 대한 애상감이 드러나 있다.

해설

- ④②②①②
- ③⑤①③⑤
- ④①③④⑤
- ④

[1~3] (예술) 장민한, 「아서 단토의 미술종말론과 그 근거로서 팝아트의 두 가지 함의」

현대 예술 철학의 대표적 이론가인 아서 단토의 예술 종말론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글이다. 단토는 <브릴로 상자>를 계기로 예술의 본질을 찾는 것에 몰두했으며, 그 결과 예술 작품은 '무엇에 관한'과 '구현'이라는 요소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그는 예술의 역사에 대한 통찰을 통해, 당대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지식과 이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체계인 '예술계'를 바탕으로 예술 작품은 그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토는 예술의 역사를 '내러티브'의 역사로 파악하고 예술이 철학적 단계에 이름에 따라 그 이전의 내러티브가 종말에 이르렀다고 본다. 단토의 예술 종말론은 예술에 대한 비극적 선언이 아니라 예술 해방기의 도래를 천명한 예술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파악한다.

이 글에는 단토가 예술계의 지위 회복 방법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없다.

[오답풀이] ① 넷째 문단에서 단토가 파악한 내러티브로서의 예술사에 대해 다루고 있다. ② 첫째 문단에서 단토가 예술 종말론을 주장하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다. ③ 다섯째 문단에서 단토의 예술 종말론이 지닌 긍정적 함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⑤ 둘째 문단에서 단토가 제시한 예술 작품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에 대해 밝히고 있다.

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단토는 <브릴로 상자>를 계기로 예술의 본질을 찾는 데 몰두하였고, 그 결과 예술 작품은 '무엇에 관한'과 '구현'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예술계'를 바탕으로 예술 작품이 그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단토가 예술 작품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오늘날의 예술은 철학적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을 넘어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③ 예술 작품은 당대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지식과 이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체계에 의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④ 재현의 내러티브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상주의까지 이어진 것으로, 예술의 종말 이전의 내러티브이다. ⑤ 예술 작품은 예술계에 의해 예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계가 달라지면 예술 작품이었던 것이 예술 작품이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3. [출제의도]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상황에 적용한다.

(B)는 미술 작품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으로, 예술에 대한 철학적 의문을 드러내지 못한다. (A) 역시 '바자리의 내러티브', 즉 예술이 철학적 단계에 이르기 이전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술에 대한 철학적 의문을 드러내지 못한다.

[오답풀이] ① (A)는 인상주의 화가인 세잔의 작품으로, 재현을 예술의 목적으로 보았던 '바자리의 내러티브'에 의해 미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③ (C)는 <브릴로 상자>와 같이 예술의 종말을 보여주는 예술 작품으로,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없는 시기라는 것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예술이 철학적 단계에 이르러 그 이전의 내러티브가 종결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어떤 대상을 예술 작품으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예술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⑤ (B)는 <세잔 부인의 초상>의 양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일상의 것으로서, 해석되어야 할 주제를 가지지 않는다.

[4~7] (과학) 권민정 외, 「파동과 음파」

매질을 통해 진동이 에너지로서 전파되는 파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매질을 따라 진행되는 파동이 매질의 변화를 만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설명하고, 반사와 투과라는 대표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셋째 문단에서 파동의 속도가 일정하면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다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파동의 진행 속도가 동일하다면 낮은 주파수의 파동일수록 파장은 길게 된다.

[오답풀이] ② 둘째 문단에서 진폭은 평형점 0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높이, 즉 진동하는 입자가 평형점에서 최대로 벗어난 거리라고 제시되어 있다. ③ 첫째 문단에서 파동의 개념이 '공간이나 물질의 한 부분에서 생긴 주기적 파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위로 멀리 퍼져 나가는 현상'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④ 첫째 문단에서 파동의 에너지는 매질을 따라 전달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셋째 문단에서 음파의 경우 주파수가 높을수록 매질에 더 잘 흡수되어 멀리 진행하지 못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음파에 해당하는 초음파 역시 이러한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험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멀리 진행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마지막 문단에서 입사한 파동의 에너지 중에서 일부분만 포함하는 반사파의 진폭은 줄어 들게 된다고 되어 있다. ③ (나)에서 ㉠가 ㉡보다 입사파의 세기에 대한 상대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바닥에서 더 많이 반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시험체와 바닥의 음파 저항의 차이가 더 컸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나)의 가로축은 반사파가 감지된 시간을 거리로 환산하여 보여 준다고 되어 있다. ⑤ 셋째 문단에서 파동은 진행하면서 에너지가 매질에 흡수되기도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파동이 반사파와 투과파로 나누어 질 때 다른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에너지를 나누어 가지게 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6.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은 줄이라는 매질과 벽의 고정단에서 파동이 달라지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은 밀도가 다른 매질의 경계에서 파동이 달라지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두 상황은 모두 매질의 변화에 따른 역학적 파동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역학적 파동으로 인한 매질의 특성 변화를 보여 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셋째 문단에서 역학적 파동은 진행하면서 매질에 흡수되어 에너지를 잃기도 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두 상황에서 역학적 파동의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역학적 파동의 에너지와 진폭은 관련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두 상황에서 에너지의 증가를 고려하기는 어렵다. ⑤ 두 상황은 모두 매질에서 파동이 진행하면서 겪는 변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7.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손실'은 '잃어버리거나 축이 나서 손해를 봄. 또는 그 손해.'라는 뜻의 단어이다.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을 뜻하는 단어는 '실패'이다.

[8~10] (현대시 복합) (가) 고은, 「머슴 대길이」 /

(나) 신경림, 「즐거운 나의 집」

(가) 고은, 「머슴 대길이」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서 함께 살았던 '머슴 대길이'에 대한 추억을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대길이가 아저씨'를 추억하며, 그가 자신에게 '불빛'이 되어 준 소중한 존재였음을 노래한다.

(나) 신경림, 「즐거운 나의 집」

자신이 나고 자란 근원적 공간인 '나의 집'에 대한 인간의 본원적인 애착을 노래한 시이다. '나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화자는 어른이 되면서 '나의 집'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찾아 떠돌게 되지만, 결국 화자는 가족들과 함께한 유년의 따뜻한 기억의 '그림'에 이끌려 '나의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하게 되었음을 노래한다.

8.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와 (나)에는 모두 과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다.

[오답풀이] ② 화자가 소망하는 가상의 상황은 두 작품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대화체의 어조는 (가)에서 일부 나타나지만, (나)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자신의 일상적 삶을 반성하는 화자의 모습은 두 작품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두 작품은 모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9. [출제의도] 시의 내용을 감상한다.

'대길이가 아저씨'는 현실 생활에 충실한 삶을 살았으며,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현실 세계를 벗어난 순수한 자연의 세계를 동경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대길이가 아저씨'에게 배운 한글을 통해 '세상에 눈떴다'는 것은 화자가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머슴이었던 '대길이가 아저씨'에게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대길이가 아저씨'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남하고 사는 세상'을 강조한 '대길이가 아저씨'의 말에서 이기적인 삶을 멀리하고자 했던 대길이가 아저씨의 가치관이 화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⑤ '대길이가 아저씨'가 화자에서 '불빛'이 되어 주었다는 것은, 그가 화자에게 삶의 방향을 이끌어 준 인물이었음을 의미한다.

10.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시를 감상한다.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는 나의 이 집이 좋아졌다.'고 했으므로, '나의 집'으로 이끄는 힘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틀 속'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사랑방 건넌방 헛간 안방'은 가족들이 머물던 공간이었으므로, 이곳을 오가며 놀이를 즐겼다는 것은 가족들이 감싸주는 공간에서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낸 화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② 화자가 '이 그림 속'에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한 것은 가족들의 여러 방을 오가면서 즐거운 놀이를 하며 보낸 유년의 따뜻한 기억의 '그림'이 화자에게 그대로 남아 본원적인 애착을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외지로 떠난 것은 '이 틀 속'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던 화자의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는 화자가 '나의 집'을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근원적 공간인 그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11~13] (고전소설) 김만중, 「사씨남정기」

이 작품은 17세기 후반 김만중에 의해 창작된 한글소설이다. 주인공 '사 씨(사정옥)'는 현숙한 인물로 '유한림'과 혼인하여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나 후사를 위해 들인 첩 '교 씨'의 음모로 가문에서 쫓겨난다. 사 씨는 고난을 겪다 목숨이 위태로워지기도 하나 조력자의 도움으로 삶을 이어나간다. 사 씨의 고난은 유한림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고 이에 따라 악인이 처벌됨으로써 종결된다. 사 씨는 가문에 복귀하여 행복한 여생을 누리며 부녀자로서 덕을 실천한다.

11.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여승 일행이 '묘당의 문'으로 들어와 사 씨 일행을 만난 것이므로, 사 씨가 여승 일행을 만난 곳은 '묘당(황릉묘)'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황릉묘'를 떠나 정처 없이 방랑하던 중에 만났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차의 향은 여전히 입안에 남아 있었고 낭랑의 말도 귀에 생생했다'에서 사 씨가 깨어난 뒤에도 꿈에서 경험한 일을 생생히 느꼈음이 드러난다. ② '단청은 떨어지고 전각은 황량했다'는 것에서 사 씨 일행이 찾아가던 '황릉묘'는 초라하고 황량한 곳으로 그려진다. ⑤ '군산은 지리적 형세가 험하며 '예로부터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는 곳'으로, 세속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다.

12.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에서는 가정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의 대조'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첩이 듣기에 남해는 세상의 한구석으로 길이 멀고 험하다 했습니다.'에서 남해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들고, '첩에게는 수레도 없고 양식도 없으니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들며 제안이 실현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 '첩이 평생 모시고 심부름이라도 하길 바랐던 분들이옵니다.'에서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여승은 '출가한 사람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보살의 명까지 받았습니니다.'에서 자신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암자에 폐를 끼칠까 염려하는 사 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13. [출제의도] 작품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서사적 기능을 이해한다.

[C]의 '꿈속'에서 낭랑은 사 씨에게 '남해 도인'을 찾아가 잠시 의탁하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남해에 사는 여승이 나타나 의지할 곳 없는 사 씨를 군산으로 데리고 간다. 따라서 [C]의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 씨가 의지할 곳을 알려주었으므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C]의 '남해도인이 그대와 깊은 인연이 있으니 잠시 의탁하도록 하세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지요'에서 하늘의 뜻(천상계)에 따라 사 씨가 겪게 될 일(지상계에서의 사건)이 전개되는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② [C]의 '힘쓰고 힘써, 선을 행하세요.'에서 사 씨가 지상계에서 지켜나가야 할 삶의 지표가 제시되며 '오십 년 뒤에 마땅히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에서 사 씨의 예정된 미래의 모습이 제시된다. ④ '장강', '반첩여' 등의 인물은 부녀자의 덕을 실천한 여성들이다. 따라서 사 씨가 [C]의 '꿈속'에서 이들과 만나고 '다른 날 마땅히'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것은 사 씨의 현숙한 인물됨과 관련 지을 수 있다.

[14~16] (고전시가) 정철, 「성산별곡」

이 가사 작품은 정철이 전남 담양에 있는, 서하당 김성원이 지은 '식영정'에 머물면서, 김성원의 삶을 노래한 것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자연 속에 머물며 신선과 같은 풍모를 지닌 '주인'('산옹')의 삶을, 사계절의 절경과 옛 고사를 제시하며 노래한 것으로, 정철 자신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작품으로도 볼 수 있다. 제시문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서사와 결사를 통해 말을 주고 받는 구조로 작품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는 '손'인 '정철'과, '주인'인 '김성원'의 대화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정철'이 '김성원'의 삶을 예찬하는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

14.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제시문은 전체 작품 중 서사의 일부와 본사 중 봄과 여름을 노래한 부분으로, '매창(梅窓)'의 '매화(梅花)'와 '도화(桃花)'는 봄을, '남풍(南風)'과 '녹음(綠陰)'은 여름임을 알게 하는 자연물이다. 삼베옷을 뜻하는 '마의'는 신선적 풍모를 드러내는 소재이면서도, 시원한 계절인 여름임을 알게 해주고, 인간 세상의 유월을 뜻하는 '인간 유월'에서도 계절적 배경이 여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계절의 변화 양상과 관련하여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철철이'의 '철철'은 '철(계절)마다'라는 뜻으로 음성 상징이 아니다. 이는 때에 맞게 바뀌는 산중의 경치와 관련된다. ② 이 작품에서는 자연 속에서 신선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한가로운 정취가 드러난다. ③ 과거의 모습을 추론할 수 없고, '할 일'은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산중 생활에서의 삶을 의미한다. ⑤ 부분적으로 '~니 듯'의 구조가 반복되거나 유사한 시구가 사용되고 있으나, 동일한 시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있지는 않다.

15.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보기>는 '성산별곡'에 인용된 '고사'에서 등장하는 '소재'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기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자료>는 제시문에 등장하는 소재와 관련된 고사의 내용이다. 자연을 노래한 가사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백구(갈매기)'라는 소재는 인간의 무심(無心)을 알아보는 갈매기로서, 욕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심코 한가함이 주인과 어떠한가'는 '백구'와 '주인'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자료>의 '백구' 고사로 볼 때, '갈매기를 잡으려는 마음'은 '무심함'이 아니라 '욕심'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주인'의 모습을 '어부'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연상하는 것은 적절한 감상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산옹'이 '외씨'를 뿌리며 산에서 살아가는 '소박한 삶'은, 진나라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외씨'를 뿌리며 살던 '소평'의 모습을 연상케 하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② '시내 길'에 피어 있는 '도화'는 진나라 때 고사에서 유래된, 복숭아꽃이 만발한 '무릉도원'을 연상케 하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③ '꽃잠'을 자며 느낀 평안함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희황'과 관련된 '희황 배개'로 상징되는 태평함을 연상케 하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④ 산에 피진 '연꽃 향기'는 '연꽃'을 소재로 '군자'의 덕을 예찬한 송나라 도학자 '엄계'가 지은 '애련설'을 연상케 하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16.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보기>는 '강강월'이라는 기녀의 시조 작품으로, 홀로 잠 못 이루는 밤에 등불을 다시 켜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에서 '할 일'은 '산옹'이 산중에서 살아가는 한가로운 삶을 뜻하는 것으로,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과업'이 아니며, <보기>의 '잔등 돋워'는 '나'가 잠도 오지 않은 방에서 사그라지는 등불의 심지를 돋워 다시 밝게 하는 행위로, '나'의 외로운 정서를 달래고자 하는 행위이다.

[오답풀이] ① ㉠의 '매창'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산옹'이 '아침별'이 나는 밖의 상황을 알게 되는 통로이며, <보기>의 '창'은 방 안에 홀로 잠들지 못하는 '나'가 '굶은 빛소리'가 들리는 밤의 방 밖 상황을 알게 되는 통로이다. ② ㉠의 '아침별'은 '산옹'이 맞이하는 아침의 분위기를, <보기>의 '기러기 우는 밤'은 '나'가 잠 못 들고 있는 '밤'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③ ㉠의 '향기'는 아침에 '산옹'이 일어나도록 자극을 하고 있고, ㉠의 '굶은 빛소리'는 등불을 다시 밝히며 잠 못 들고 있는 '나'가 더욱 잠이 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⑤ ㉠이 '곧 없지도 아니하다'에서는 소박하게 살아가는 '산옹'의 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더욱 망연하여라'에서는 잠 못 드는 밤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나'의 슬픔이 드러나 있다.